

무주택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은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 문제일 것이다.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지원에 나섰다.

글: 이유진(고양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아이 낳고 싶은 도시, 고양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다. 고용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 그리고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비혼과 딥크족을 택하는 젊은 세대들. 이에 고양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 출산지원금 확대,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2022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2021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① 신분증 ② 신청서·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금융거래확인서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배우자의 도장이 찍힌 서약서 및 동의서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서류를 발급·작성하여 방문하면 편리하다.

신청 기간 확인 필요

2022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 이후 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직전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신청이 있어야만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 가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로 ① 직전연도(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단, 최초 신청 시) ②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④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⑤ 전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세전소득으로 3인 가구 5,975,925원, 4인 가구 7,314,435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의 유사 주거지원정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과 유지조건은?

202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최대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초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 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이 재개되지 않는다.

